



2013. 6. 3.

주최  사단
법인 한국농아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후원  한국장애인재단

<목 차>

[발제] 한국수화 및 한국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김철관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외래교수	7
[토론] 한국수어 및 농인 관련 용어에 대한 논의의 글 강주해 주은농선교교회 담임목사	19
[토론] 한국수화 및 한국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25
[토론] 농사회 용어의 정리 방향 윤석민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9
[토론] 청각장애인과 농인 및 한국수화와 한국수어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및 제시방향 손원재 명성교회 농아부 담임목사	37
[토론] ‘한국수화 및 한국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토론문 강미영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학예연구사 김아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41
[부록] 농사회 용어정리 사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47

[발제]

김칠관 교수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한국수화 및 한국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김 칠 관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교수

1. 머리말

용어로서 「수화」에 대한 개변 논의는 2000년을 전후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주해(1998)에서 「수어」의 타당성 제기는 한국수화연구회(현 한국수화학회)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의 실마리가 됨으로써, 김상화(2000), 강창욱(2000), 김칠관(2001)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논의는 문화관광부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3)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는 김칠관 등 12명의 의견 중 다수 의견에 따라 「수화」 및 「한국수화」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수어」를 용어로 사용하는 논문(주로 학위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름지기 용어란, 영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그 용어 사용자들의 의식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언어일 경우 의식은 언어태도로 드러나게 된다. 수화언어는 이것을 모어(mother tongue)로 삼고 있는 원어민(native signer)이 있고, 수화언어가 모어인 원어민들에게 있어 그들의 언어를 가리키는 용어에는 그들의 언어태도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처음서부터 이와 같은 언어태도를 바탕으로 용어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화언어를 가리키는 용어에 대한 원어민들의 언어태도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익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밑바탕에는 농문화가 있다. 수화언어와 농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화 원어민들의 언어태도는 용어에 대한 의식이나 학문적 해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수화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자신들의 문화 소산으로서 수화언어를 소중히 여기며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불란서어 문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 레빠의 「방법적 수화」가 「미국수화」로 거듭나게 된 것이나, 한어(중국어)의 문법에 짜 맞춘 「중국어수어」에 가려 있던 「랴오닝수어」, 즉 오랜 세월 랴오닝 농인들의 언어태도가 녹아있는 그들의 수화언어를 세상에 드러낸 것과 같은 것들은 그 좋은 예다.

2006년의 「뉴질랜드수화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수화언어에 대한 농인공동체의 언어태도를 다시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8년 이후 한국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수화언어의 법제화 연구가 추진된 것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이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수화언어와 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발제자는 한국수화언어와 그 원어민 관련 용어의 사용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용어의 사용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제의 취지를 대신하고자 한다.

2. 용어 사용의 역사적 배경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일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 하겠다. 더구나 백 년을 헤아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한국 농인들의 의식과 정서가 녹아있는 용어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그 사용 배경을 돌아보는 일은 너무나 마땅하다. 이에 발제자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약간의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2.1 사용 시기와 사례

한국 안에서 처음으로 농교육이 비롯된 평양맹아학교는 물론 조선총독부 제생원 부설 맹아부 어느 기관도 교과과정에서 수화를 제시한 바 없다. 다만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실제로 수화가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다. 그것은 맹아부 내외 자료들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 가운데는, 행정 문서, 수화강습·교육방법 관련 기고문, 신문기사 등이 포함된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제생원 맹아부의 교육방법을 소개한 문서(조선총독부, 1915)에서 「수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생원 맹아부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생원 맹아부는 1913년 교육 개시 초기부터 용어로서 「수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8년에는 맹아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화강습」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 기록은 지란(知覽, 19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제생원 맹아부 부장이었던 그는 기고문에서 「수화」뿐만 아니라 「농아자(聾啞者)」, 「농아아(聾啞兒)」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맹아부 설치 초기부터 농학생을 이르던 용어인 「아생(啞生)」 또는 「음아생(瘖啞生)」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생원 맹아부 밖에서는 신문(동아일보, 1924.2.10; 1924.3.15) 기사에서 「수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용어의 일반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신문기사는 조선맹아협회가 수화강습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상은 농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1933년 지란(知覽, 1933)에서는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1928년 기고문에서 제시한 바 있는 「수화법」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구화법 단일 방법은 한국 내의 언어사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수화법에 무게를 둔 혼합법을 논의한 데서 제기된 것이다.

광복 직후에는 일제 강점기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면서도 처음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미군정기의 자료(鄭泰秀, 1992하:6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군정청 기록(summation No.9, 1946.6)에서는 용어로서 「*deaf*(농)」, 「*sign language*(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기록은 국립맹아학교 내 농학생의 구화지도를 위한 학급이 설치된 것과 저학년에서는 수화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내용에 포함된 것들이다.

1961년 현재, 서울맹아학교 보통사범과 교과과정에 「수화」가 포함되어 있으며(韓國教育十年史刊行會, 1961), 장애아동 실태조사(보사부 아동복지위원회, 1961)에서는 청각장애를 「농아(聾啞)」와 「농(聾)」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준수화사전」(1982) 서문에 「농아자」가 제시됨으로써 『수화』(서울농아학교, 1963)에서의 용어를 답습하고 있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새로운 변화는, 「수화교실」, 「수화동아리」 등으로 드러났으며, 이 시기 토털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은 농학교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보면, 제1차(1967)

에서 제3차(1983)까지는 「농학교」를 사용하고 있으나, 제4차(1989) 이후는 청각장애로 바뀐다(정동영 외, 1994). 1991년의 「한글식 표준 수화」(교육부 장학자료)와 「수화 1·2·3」(농학교 수화 교재, 1993-1995) 등에서도 수화가 용어로 이어진다.

용어로서 「한국수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태영(1982, 「표준수화사전」 추천사)에서 비롯되어 김승국(1983)에서는 처음으로 「*Korean Sign Language*」에 대응시키기도 했다.

농인들의 정치·사회 집단, 문화·종교 집단 등의 이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아인(聾啞人)」을 사용한다.

2.2 약간의 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화와 수화원어민 관련 용어를 살펴 본 바로는, 농교육 초기를 제외하고 약 백 년의 역사를 통해 사용해 온 용어에서 큰 변화를 발견 하기는 어렵다. 용어로서 「수화」, 「농자」 또는 「농아자」, 「농인」 또는 「농아인」 등이 그것인데, 용어의 사용에서 비교적 일관성이 유지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른 시기부터 영어식 용어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어 어법에 맞는 수화의 등장은 수화언어에 대한 언어태도를 왜곡하는 데 기여했고, 병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은 용어로서 「농」 또는 「농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실상에 대한 반론은 일부 학교의 교명 환원을 이끌기도 하였다. 특히 농인단체 이름에 포함되는 「농아인」은 농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

3. 용어의 사용 실태 분석

발제자의 손이 미치는 범위에서 용어의 사용 실태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조사·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간략하게 용어의 해설을 모은 자료들은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개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내의 실태는 토론회 주최 측에서 제시한 예(토론회 계획서)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부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회의자

료(2003)를 바탕으로 한다. 북한의 실태는, 「손말사전」(교육도서출판사, 2005), 「손말학습」(조선장애자지원협회, 2005)을 따른 것이다.

중국의 실태는, 「중국수어개론」(傳逸亭 등, 1985/劉光明 역, 1989 비매품), 「중국수어연구」(趙錫安, 1999), 「아시아의 농인 사정에 관한 조사연구(アジアのろう者事情に關する調査研究)」(加藤三保子, 2002), 「중국수어천담(中國手語淺談)」(戴目, 2002 비매품), 「수화·당신·나·그/그녀(手語你我他)」(遼寧省聾人協會, 2006) 등을 참고로 했다.

일본의 실태는, 「농문화(ろう文化)」(現代思想編輯部編, 2000[1996]), 「명치 후기 동경맹아(농아)학교 교육내용의 역사적 일 고찰(明治後期の東京盲啞(聾啞)學校における教育内容の歴史的一考察)」(野呂 一, 2006), 「수화언어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手話言語法を制定することの意見書)」(전일본농아연맹, 2012), 「수화언어와 언어의식의 변화」(김칠관, 2011) 등을 참고로 했다.

3.1 한국

한국농아인협회가 이 토론회를 위해 조사한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농(아)인 관련 용어	농인, 농아인, 농아자, 청각장애인, 구화인, 난청인
수화 관련 용어	수화, 수어 한국수화, 자연수화, 농식 수화, 관용수화, 한국어대응 수화, 문장식 수화, 청인식 수화, 손짓 한국어

농인 관련 용어에서는 전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앞의 농인, 농아인, 농아자는 모두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농인 관련 용어 대부분은 서구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농인의 개념은 분명치 않다. 그 까닭은 장애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과 언어·문화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deaf/Deaf」의 구분(Woodward, 1972)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할 경우 그러하다.

수화 관련 용어에서 논의의 초점은 수화와 수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어로서 수화의 전통성과 일관성에 비해 수어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는 언어성을 드러냄에 있어 보다 타당하다고 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한국수화는 개별언어로서의 수화언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수화, 수어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 밖의 수화언어 관련 용어들은 한국어 어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한글식 수화)과 수화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

농아인협회 시도 협회 및 지부를 중심으로 한 조사(표준수화 관련 회의 자료)에서는, 용어로서 「수화」와 「수어」의 찬성 비율이 각각 50%와 46%(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의 찬성 이유에서 「수화」는 전통적인 사용과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이 절대 다수이고, 「수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과 같은 언어라는 것과 손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각각 47%(강)와 40%로 나타남으로써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3.2 북한, 중국, 일본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인 관련 용어는 농아(聋아: 聾啞)와 청각장애자이고, 수화 관련 용어는 손말이다. 앞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북한에서의 손말은 음성언어(조선어) 어법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에서 농인 관련 용어는 농아(聾啞), 농인(聾人), 난청 등이고, 수화 관련 용어는 수어(手語)이다. 중국에서의 수화언어 관련 용어인 수어는 수지어(手指語)와 수세어(手勢語)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앞의 것은 지문자를 이르는 것이며, 뒤의 것은 농인들의 수화언어를 이른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어란 수화와 지문자의 결합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중국수어는 한어(漢語/중국어)의 어법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중국수어는 전통적인 농인들의 언어(상하이, 뎬이징, 광조우, 랴오닝 등지의 수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그 모습을 드러낸 랴오닝수어(遼寧手語)는 수화언어의 실체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화언어에 대한 중국 농인들의 언어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일본에서의 농인 관련 용어로는, 농자(聾者), 난청, 청각장애자 등이 있

으며, 수화 관련 용어로서 전통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화이다.

1902년 일본에서는 「농아교수수화법(聾啞教授手話法)」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으로만 보면 일본에서 「수화」라고 하는 용어가 매우 일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화법」은 「구화법」, 「시화법」 등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용어일 뿐 농인들의 수화를 이르는 용어와는 관계가 없었다. 제생원 맹아부 설치 당시 일본(동경농아학교)에서는 농인들의 수화를 이르는 용어로 「손짓(手眞似)」을 사용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까지도 이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일본수화 관련 서적이 간행되기도 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어 어법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일본어대응수화」가 사용되고 있다.

1996년의 「농문화선언」을 계기로 일본의 농인들은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된다. 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논의는 용어의 문제보다도 소수집단인 농인들의 언어와 문화의 문제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수화언어법」(안) 작성을 계기로 합의에 이른 농인 관련 용어에서는 농(Deaf)의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ろう者(농자)」로 나타낸다.

3.3 서구식 용어에 대한 간략 검토

교육, 복지, 언어 등의 제도화 및 연구에서 앞선 서구의 영향은 농인과 수화 관련 용어에서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인(Deaf person)은 우리의 전통적 용어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의 경우 농인을 보는 관점에서 개념 정립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수화 관련 용어로 「langue des signes」과 「language of sign/sign language」는 19세기 불란서와 미국에서 공통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용어이다. 이는 옛 미국수화 시기의 소산으로서 체계보다는 언어공동체에 대한 실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예는 많은 수화언어의 이름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독일의 「Gebärdensprache」, 러시아의

「сурдология」 등도 그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이 이름들의 의미는 각각 「몸짓 말」, 「농인의 말」이다. 따라서, 수화를 이르는 용어를 검토함에 있어 낱말의 의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김철관, 2001).

4. 합의를 위한 방향

4.1 용어와 언어태도

한국에서 수화와 수화원어민 관련 용어들은 백 년을 이어 오면서 농인들이 사용해 온 것들이다. 불란서 사람들이 불어를 「notre langue」라고 하는 것이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농인들이 한 세기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를 되새겨 본다는 것은 언어와 농인 자신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는 단순한 의미상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언어, 사회, 문화 등과의 깊은 관계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한국의 경우 용어 개변 논의는 언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인 수화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문제는 수화 연구와 여기에 힘입은 농인공동체의 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한 수화 연구는 수화가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임을 확인했고, 그러한 연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화 연구는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태도에 변화를 주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언어의 독자성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에 자극제가 된다. 나아가 수화언어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농인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수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에게서 다문화 인식은 한국의 토착 소수 언어·문화공동체인 농인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농인들의 태도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또 넘어서야 할 것이다.

4.2 용어의 절충

수어를 바람직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다수 의견은 수화가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표준수화 관련 회의자료). 비교적 젊은 언어인 농인들의 말에 붙여진 이름(용어)은 언어체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체계가 밝혀졌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수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이다. 농인들은 물론 많은 청인들이 사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농인을 이르는 용어에서는 사용 시기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반면, 수화는 일관성을 유지한 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용어 사용 환경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분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절충에 의한 용어의 사용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언어 관련 용어는 수화와 수어를 아우를 수 있는 「수화언어」로 하되, 이의 약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화언어」는 「음성언어」의 대응 용어로도 어울린다. 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로는 보편화되어 있는 「농인」이 적합할 것이다. 다만, 수화언어의 법제를 전제로 할 경우 「농인」에 대한 언어·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5. 마무리

한국에서 수화언어와 수화언어를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관련 용어는 사용 시기의 관점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농인들은 그들의 언어와 자신들을 이르는 관련 용어를 처음서부터 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농인들은 백 년에 이르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언어태도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동안 「수화」로는 농인들의 언어를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일게 되면서 「수어」가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로서의 위상에 맞는 용어여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언어 전반이 그러하듯 수화언어 또한 처음서부터 체계를 의식하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니다. 체계보다는 농인의 말에 대한 실체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용어를 바꾸지는 않는다.

수화언어의 법제화 등을 전제로 한다면 용어의 정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용어의 정비가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절충에 의한 방법은 그래서 필요하다.

용어의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용어 사용을 억제하거나 획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참고문헌 개별 제시 생략>

[토론]

강주해 목사 (주은 농선교교회)

이준우 원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윤석민 교수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손원재 목사 (명성교회 농아부)

강미영 학예연구사(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김아영 학예연구사(국립국어원)

한국수어 및 농인 관련 용어에 대한 논의의 글

강주해

주은농선교교회 담임목사

현재 농사회에서 한국 농인들이 사용하는 모어인 수동 시각 언어를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청력 손실로 인해 음성 언어를 청취하거나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용어도 여러 가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관계로 용어에 대한 정리 및 통일이 필요하다는 협회의 제기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어 정리 토론회의 개최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더욱이 수화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의미와 용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본 토론자는 용어에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견이 용어의 바른 정립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다.

농인들의 모어인 수동 시각 언어에 대한 용어 문제

오랫동안 농인들이 사용하는 손말을 ‘수화’라는 용어로 거의 무비판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김철관 교수의 검토에 따르면 이 ‘수화’라는 용어는 조선총독부의 문서나 신문 광고 또는 기고문에서 발견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청인들 사이에는 ‘수화’라는 용어에 무척 친숙해 있어서 이 용어를 바꾸면 혼동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다.

그럼에도 본 토론자가 이 ‘수화’라는 용어에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이 용어가 ‘언어’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확고하게 사람들의 머리에 인식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수화’라는 용어의 한문을 보면 손 수(手)와 말씀 화(話)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언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농인들이 사용하는 3차원적 수동 시각

언어를 음성 언어에 손색이 없는 언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語)’ 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화’ 대신 ‘수어’라는 용어 사용을 제기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만일 화(話)라는 한자에 언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면 왜 한국어 대신 한국화(韓國話)라고 부르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본 토론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화(話) 자가 들어 있는 단어 중에 언어로서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수화’가 유일하다. 담화, 설화, 동화, 회화, 전화, 통화, 일화, 신화, 화두, 대화, 우화, 화술, 화제 등등은 모두 이야기나 말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이지 어느 것도 언어로서의 의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화는 하나의 언어라기보다는 손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의견이다. 결국 수화는 언어라기 보다는 언어 표현 양식의 하나로서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이 손으로 표현되는 언어 양식을 음성언어에 손색 없는 하나의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철관 교수의 지적대로 ‘수화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고 옳다. 하지만 수화언어라는 용어는 4개의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어’라고 줄여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미 중국에서 이런 용어를 표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사용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서 친숙해진 ‘수화’라는 용어를 폐기하는 것은 솔직히 좀 아까운 감이 있으므로 어휘의 의미로 아니면 손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동작의 의미로 ‘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언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수어’라고 함으로 수화와 수어를 차별화는 것이 정확한 용어 정립을 위해 유리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종교수화’라고 할 때 이는 언어라는 의미의 수화가 아니라 어휘라는 의미의 수화라는 것은 명백하다. 문장식 수화나 문법수화, 농식수화, 자연수화 같은 것은 정확히 언어를 지칭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수화 표현의 양식의 일종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한국어는 하나 밖에 없듯 한국수화언어도 하나 밖에 없다. 그러면 문장식 수화라느니 문법 수화라느니 농식 수화라느니 하는 것은 한국수화언어가 여러 개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용어는 모두 수화표현 양식의 일종이지 정식 수화언어라고 인정하는데 무리가 있다. 어휘로서의 수화와 언어로서의 수화라는 용어를 차별 없이 사용할 때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는 어휘와 언어를 지칭하는 말을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언어를 sign language라고 쓰고 어휘를 sign이라 쓰고 있다. 일본의 경

우 언어를 수화라고 쓰고 수화 어휘를 영어 발음 그대로 ‘사인’이라고 쓰고 있다. 중국의 경우 언어를 ‘手語’ 어휘를 ‘手勢’라고 쓴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수화 어휘와 수화 언어를 다른 단어로 차별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수화어휘를 지칭할 때 “수화”, 수화언어를 지칭할 때는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혼동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자는 아래와 같이 용법을 제시함으로 용어 사용에 정확성을 기하고 싶다.

- 언어로서의 손말: 수어 혹은 수화언어(sign language)
- 어휘로서의 손짓: 수화(sign) (‘수화단어’라는 말은 수화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표현되는 손짓이기 때문에 단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부적합하고 무리가 있다 영어에서 수화 단어(sign language word)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을 유념해두는 것이 좋겠다.)
- 손으로 말하는 동작이나 손으로 표현하는 행위: 수화하다(동사)(sign), 수화하기(동명사)(signing)

청력 손실로 인해 음성언어를 의미 있게 청취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어 문제

옛날에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병어리’라고 지칭한 듯하다.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라는 단편소설 제목에서 보듯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병어리’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다. 일찍이 일제 강점기에 제생원 안에 귀먹고 말 못하는 학생을 모집할 때 농아생(聾啞生)이라고 하지 않고 아생(啞生)이라고 불렀다는 증거가 있다. 본 토론자가 국립서울농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농학생들이 맹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명이 ‘서울맹아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일반인들 사이에는 귀가 먹은 것보다는 말 못하는 것을 크게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나중에 맹학생과 농학생의 분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귀먹고 말 못하는 학생들만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의 교명을 ‘서울농아학교’로 개명하였다가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과 언어순화의 일환으로 ‘서울선희학교’로 개칭하

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2년에 서울농학교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붙여야 정확할까? 구미에서는 그냥 농인(the Deaf)이라 부르고 있으므로 우리도 병어리를 의미하는 ‘아(啞)’자를 빼고 ‘농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모든 귀먹은 사람들이 반드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현실적 사실 때문이다. 사실 농인들은 말 못하기 때문에 병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병어리 아닌 병어리가 된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소리에 대한 청취 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말소리를 식별할 능력을 갖지 못한 농인들은 말소리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발음법을 터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하다. 보통 농인들은 발성기관에 아무 이상이 없지만 청력 상실로 인해 말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병어리’라는 라베르가 붙여진 것이다. 그리고 농인들도 손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한 의미에서 ‘병어리’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구미 농인들 사이에 제기 되면서 ‘아(啞)’를 생략하고 그냥 단순하게 농(deaf)인이라 부르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농인 사회에서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많은 농인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문화 집단에 속한 일원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릴 때 농학교에서 교육받아 수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청인보다는 농인끼리 어울리는 사회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전형적인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용어로서 대문자가 붙인 ‘Deaf’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고 이러한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미국 농인들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보기를 거부하고 일반 사회도 농인을 장애인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체전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올림픽(패러림픽)에 농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에서 비롯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청력 손실이 심한 농인 뿐 아니라 난청인, 노인성 난청인들도 광범하게 아우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찍 농학교에서 교육받아 수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농인끼리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전형적인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농인들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복지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농인’보다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까닭인 듯싶다. 농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농인들의 복지 수혜적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농인들과 상이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난청인이나 노인성 난청인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청인 문화에 익숙한 난청인이나 노인성 난청인들과 쉽게 동화하거나 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동일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억지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으려다 오히려 결속력이 저하되고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라리 농문화 집단에 속한 농인에 대해서는 그저 간단명료하게 ‘농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많은 난청인들은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아 수어 구사 능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들을 농인으로 부르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구화인 중에 비록 학교에서 구화교육을 받아서 독순 능력이라든가 발음능력이 다소 나올지 몰라도 졸업 후 일반 사회에서의 적응에 애로를 느낀 나머지 농사회에 귀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도 농인이라고 호칭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말소리를 의미있게 청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수어를 최고 최선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즐겨 사용하며 농인끼리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농문화 집단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농인’ 보다 더 나은 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본 토론자의 결론적 견해이다.

한국수화 및 한국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역사적으로 농인 사회는 농인의 상태에 대한 병리학적인 관점을 배척하고, 사회 문화적인 입장에 항상 서 왔다. 농인으로서 수화 사용자는 자신들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음성언어와 다른 또 하나의 독립된 언어 사용자로 인식한다. 농인들은 청각장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기보다는 수화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언어가 사회로부터 배척받고 있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화는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단죄되거나 폄하되어 온 대표적인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농인을 재활과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려 한다. 그래서 농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당연히 언어적 재활과 치료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정보 수용이나 농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제공 등은 외면 받고 그 결과 한국수화 사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인들 자신은 수화에 의한 완벽한 언어 기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화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농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다. 문제는 농인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무능한 것으로 치부하는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교육, 취업, 정보접근, 문화향유, 지역사회 참여 등 전 영역에서 농인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사회 인식 및 제도’와 ‘교육 및 문화 환경’ 등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수화 기본법’ 제정은 향후 농인 복지와 교육이 바로 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화가 언어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수화에 대한 청인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며 농인들의 자존감을 높여 삶의 질 또한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수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되는 이 때, 정작 수화와 농(아)인과 관련된 용어 정리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토론에 앞서 수화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그동안 혼선을 겪어 왔던 용어에 대해 이렇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화」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강주해(1998)는 수화라는 단어 대신 왜 수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농인이 사용하는 모어인 손짓 언어는 엄연히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라는 어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고유한 문법 체계 및 표현 양식을 지니고 있어 한국어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통사론적·구문론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문으로 볼 때 수화라는 말은 손짓 언어와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농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어라는 어휘가 낯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화라는 말은 구화의 대비로 사용된 말인 만큼 언어로서의 가치를 못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강창욱(2000)은 수어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동시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농인의 삶의 모든 가치와 행동의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농문화가 수화에 담겨져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손‘말(話)’이라는 개념보다는 손‘언어(語)’가 타당하며, 둘째, ‘말(話)’과 ‘언어(語)’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화용 규칙과 형식적인 문법 규칙을 적용하여 어떤 메시지를 가진 추상적 존재를 언어(語)라고 한다면, 말(話)은 내면의 언어가 음성으로 표현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수화라고 하면 단지 표면의 눈으로 지각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수어라고 하면 언어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의미와 화용의 규칙,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것을 가시화하는 형식 문법도 가진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독특한 문법 체계를 가진 「한국 수화」를 이제는 「한국 수어」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상화는 수화와 수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수어는 언어학적 개념에서 그리고 수화는 일상생활 수화로서의 대화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김칠관, 2001).

최상배와 안성우(2003)는 수어라는 용어 사용을 지지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수어가 하나의 언어라는 관점으로 수어는 단순한 몸짓(gesture)이 아니라 언어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농교육의 패러다임이 수어를 강조하는 2Bi(Bilingual Bicultural)로 변화하고 있으며,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회언어학적 특징인 이중문화적(bicultural) 관점에서 농인의 인격과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수어라는 용어가 적절하며, 넷째, 과거 수화의 반대말이 구화였는데, 최근 구화라는 말 대신 구어(spoken language)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구어의 반대되는 용어는 수어(sign language)이라는 것이다.

반면 김칠관(2001)은 수화를 수어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용어의 출현 시기가 확실하고 빠르다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수화」가 드러난 시기가 1935년인 데 비해, 우리는 1928년이며 일반화 시기도 우리가 앞선다. 이는 사전 수록 시기가 일본이 1972년인데 반해 우리는 1960년대 이미 국어사전에 이를 수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용어의 단일성과 일관성이다. 용어로서의 「수화」가 드러난 이후 우리는 70여 년을 한결같이 이것만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농교육이 90여 년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확고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화 강습을 통해 드러난 그와 같은 인식은 그것이 비록 수화가 농인의 언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아 획기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수화」의 일반화가 일찍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시기로 보아 일본보다는 10여 년, 중국보다는 거의 20년 가까이 앞섰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몇몇 학자들의 용어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은 여전히 「수어」보다는 「수화」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김칠관 교수님의 발제문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이분법적인 논의 보다는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이다. 이 용어를 언어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수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 토론자는 김칠관 교수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수화」와 「수어」를 함께 사용하되, 법정 용어는 「수화언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정작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농인», 「농아인」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더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및 정서 반영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찬가지로 「수어」로 수화기본법을 제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수화」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농인», 「농아인」의 경우에도 법정 용어로는 「농인」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제도적 영역을 제외한 일반 농인 사회에서 기존 관례대로 사용해 왔던 「농아인」이라는 용어를 굳이 인위적으로 급하게 「농인」으로 모두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많은 혼선을 빚어 왔던 용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화」라는 용어가 언어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가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주해(1998). 수화(手話)나 수어(手語)나. 낮은자의 행복, 통권3호, 74-75.
강창욱(2000). “문법수화가 언어인가에 대한 토론.”, 『수화언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미나』, 한국수화학회 학술발표자료, 27-30.
김칠관(2001). “용어로서의 「수화」, 그 이용 배경과 개변 논의에 대한 검토.” 한국수화연구회회보 제6호, 3-9.
이준우·김연신(2011). 『데프 앤 데프』. 파주: 나남출판.
최상배·안성우(2003). 『한국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농사회 용어의 정리 방향

윤석민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농사회 용어의 사용 현황

지금까지 농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은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또 지칭 필요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용어도 있고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용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농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농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 발맞추어 농사회 용어의 사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용어들이 아무런 정리 없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농인 및 농사회에 대한 이해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용어는 사용자에 따라, 또 지칭 의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반드시 정확한 개념 정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혼동을 줄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사회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사람’과 ‘말’에 관련된 용어만 대략 제시해도 다음<표1>과 같다. 이를 보면 사전에 올라 있는 말도 많이 있지만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도 상당수이다.¹⁾ 사용되는 빈도나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관련 어휘들이 사전에 더 많이 등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뜻풀이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²⁾

1) 현재의 사전 등재 목록 선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국립국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현재 기준이 된 사전은 국립국어원이 웹상에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에 대하여는 중요한 것만 추려 아래에 뜻풀이도 함께 제시한다. 과거 발행되었던 <표준국어대사전>과 비교하면 뜻풀이도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어휘 간의 뜻풀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확한 진술도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도 기대한다.

‘사람’ 관련 어	농인(聾人) ³⁾ , 농아(聾兒) ⁴⁾ , 농자(聾者), 농외(聾聵), 농혼(聾昏),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⁵⁾ , 농아(聾啞) ⁶⁾ , 난청아(難聽兒) ⁷⁾	농, 농아인, 농아자, 청인, 건청인, 아아인, 난청인, 전농, 반농, 구화인
‘말’ 관련 어	수화(手話) ⁸⁾ , 수어(手語) ⁹⁾ , 손짓말 ¹⁰⁾ , 지화(指話) ¹¹⁾ , 시각 언어(視覺言語) ¹²⁾ , 수화법(手話法) ¹³⁾ , 지화법(指話法), 구화(口話), 구화법(口話法)	손말, 수화언어, 한국수화, 농식수화, 자연수화, 관용수화, 한국어대응수화, 문장식수화, 문법식수화, 손짓한국어, 청인식수화

위 <표1>을 보면 지금 혼재되어 쓰이는 용어가 매우 많고 또 그 개념 역시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들 역시 모두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근거를 가지고 사용되어 오던 것이지만 이렇게 종합하여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사회 용어 정리의 기준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용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책은

-
- 3) ‘청각 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 ≍농외(聾聵)·농자⁰⁴(聾者)·농혼(聾昏).
4) 귀가 안 들리는 아이.
5)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7) 농인(聾人)은 아니지만 청력 장애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
8)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이 구화(口話)를 대신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 손가락이나 팔로 그리는 모양, 그 위치나 이동, 표정이나 입술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행하여진다. ≍손짓말 「1」·수어⁰¹(手語).
9) =수화⁰¹(手話).
10) 「1」=수화⁰¹. 「2」손짓으로 하는 간단한 의사소통.
11) 수화(手話)에서, 한글 자모음이나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방법.
12) 문자에 의하지 않고 색채나 도형 따위로 뜻을 전달하는 기능을 지닌 언어. 수화(手話), 상징 도형, 표지 따위가 있다.
13) 언어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체계화된 몸짓이나 손짓으로 말을 하게 하는 방법. ≍지화법(指話法).

의외로 간단하다. 즉,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용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적용해 보는 것이다. 무엇이 적절한 용어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사회 용어 정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용어 정리의 기준]

가. 정체성 기준: 지칭 개념/대상을 정확히 지시하는가?

나. 체계성 기준: 다른 용어와 구별되고 상호보완적인가?

다. 사회적 용인성 기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익숙한가?

(가)의 정체성 기준은, 나타내려고 하는 개념이나 지칭 대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가리는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지칭 개념이나 대상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 용어가 좋은 용어이다. 특히, 이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할 기초적인 기준이다. 용어와 관련된 개념이나 대상의 특성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용어라야 그 밖의 다른 기준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농’(聾, Deafness or Deafhood)¹⁴⁾과 ‘청각장애’(聽覺障礙, hearing-impairment)라는 용어이다. 둘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나타낼 수 있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시되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즉, 청인 사회나 맹인 등 다른 특성의 사회나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구별되는 농사회 및 농인만의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부각하는 용어가 ‘농’이라면, ‘청각장애’는 ‘농’을 장애로 인식하고 그 가운데 청각적 장애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청각장애’가 사용될 필요도 있겠지만 농사회 및 농인의 특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농’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용어 사용이 될 것이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농인’도 ‘청각장애인’에 비해 농사회의 특성을 더 정

14) deafhood는, 영국의 농학자 Paddy Lad가 1993년에 최초로 사용한 이래로 농인의 인격적 자기 정체성과 농사회 및 농문화의 고유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국내에도 최근에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농인 등을 병리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칭하던 청각장애(hearing-impairment)나 농인 및 농사회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오디즘(Audism)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우리말로는 ‘농’ 또는 ‘농성’(聾性)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농’(聾)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인의 정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드러내어 ‘청인’(聽人)이나 ‘맹인’(盲人) 등 다른 개념과의 구별도 쉽기 때문이다.

‘자연수화’나 ‘농식수화’, ‘문장식수화’나 ‘문법식수화’라는 용어도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자연수화’는 자연스러운 수화, 즉 어떤 인공적인 제한이나 의도적인 목적 없이 농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수화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칭 개념을 드러내주는 용어이다.¹⁵⁾ 이에 비해 ‘농식수화’는 수화 자체가 농인의 언어라는 점에서 약간 중복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식수화’는 인위적으로 음성 한국어에 맞춘 수화가 아니라 농인의 자연스러운 언어, 즉 자연수화의 방식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분명하다.

반면 ‘문장식수화’는 문제가 있다. 이 용어는 음성한국어의 문장처럼 짜맞춘 수화 또는 그러한 수화 사용방식을 가리킨다. 자연수화나 농식수화와 대비되어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이 용어는 자칫 ‘단어식수화’ 또는 ‘어휘식수화’가 따로 있고 이것과 대비하여 ‘문장으로 이루어진 수화’를 가리키는 혼동을 줄 수 있다. 잘못하면 수화에는 아예 문장 구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왜곡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용어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문법식수화’는 ‘문장식수화’처럼 언어단위를 혼동하는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더 적절하지만 이것 역시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 이 용어도 ‘음성한국어의 문법방식에 따라 짜맞춘 수화’를 가리키는데 수화에는 문법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현재 이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다른 것이 없다는 점에서 ‘문법식수화’가 그나마 ‘문장식수화’보다는 더 적절해 보인다.¹⁶⁾

(나)의 체계성 기준은, 다른 뜻을 나타낼 위험성이 없고 또 다른 용어와의 체계적 사용이 가능하냐를 가리는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다른 뜻으로

15) 음성언어에서도 이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자연스럽게 구사되는 언어를 자연언어라고 한다. 즉, 아래의 체계성 기준에 비추어보아도 이 용어는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6) 참고로 영어로는 수화라고 하면 sign language라고 하여 보통 자연수화를 가리키지만 음성 언어 구조에 따라 짜맞춘 언어는 signed language라고 하여 서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미국 수화는 American Sign Language이지만 영어에 맞춘 문법식 영어수화는 Signed American이라고 하여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수화는 Korean Sign Language로 당연히 한국자연수화를 가리키고 문법식 한국수화는 Signed Korean이 된다.

오용될 가능성이 없고 다른 용어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좋다. 아무리 정확한 용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수용하는 사람이 다른 뜻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용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아’(聾啞)나 ‘손짓말’의 경우를 보자. 전자는 물론 ‘농(聾)’뿐만 아니라 ‘아(啞)’ 즉, 언어장애까지 아울러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현재 농인 사회에서 ‘농아’라는 용어는 ‘농인 어린이’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농(聾)’과 ‘아(啞)’는 개념상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이 둘을 함께 묶어 지칭하는 것은 오히려 혼동을 주는 일이다.¹⁷⁾ 따라서 ‘농아’라는 용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손짓말’도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 말은 수화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고유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 주9)에서 보여주었듯이 ‘손짓말’은 수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손짓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수화가 가지는 언어로서의 고유성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 본능적으로 또는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손짓’과 달리 수화는 정밀한 언어적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화에 대응하는 고유어로 필요하다면 ‘손말’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인다.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할 대상으로 ‘수화(手話)’와 ‘수어(手語)’의 문제가 있다. ‘수어’는 최근 수화 연구자들이 학문적으로 수화를 연구할 때 수화가 지닌 언어적 특성을 강조하여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수화’가 ‘수어’에 비해 더 중심적인 어휘로 기술되고 있다. 위 주7)에서 보듯이 ‘수화’ 항목에 기본적인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¹⁸⁾ 이에 비해 ‘수어’는 주8)에서 볼 수 있듯이 ‘수화’와 같은 뜻이라는 정보만 제시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옳은 처리로 보인다. ‘수화’는 개념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구화(口話)’나 ‘지화(指話)’ 나아가 ‘한국 수화’ 등 다른 용어와의 상호보완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어’는 이에 비해 여러 단점이 있다. 우선 개념 지칭이 중복적이다. 즉, ‘수어’는 ‘수화언어’의 준말인데 ‘수화’가 이미 언어라는 점을 생

17) 의학적으로 ‘아(啞)’는 여러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훼손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들은 비록 말하는 데 장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성언어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聾)’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도 어렵게 된 경우라면 굳이 ‘농아(聾啞)’라고 할 필요 없이 그저 ‘농(聾)’만으로 충분하다.

18) 물론 현재 제시되어 있는 ‘수화’의 뜻풀이는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 수화가 언어라는 사실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이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그밖에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의 구분이나 몸짓과 손짓에 대한 구분 등도 문제이다. 좀 더 정확한 뜻풀이가 필요할 듯하다.

각한다면 결국 ‘수화언어’, 즉 ‘수어’는 ‘음성 대신하여 손을 사용하는 언어 (=수화)를 사용하는 언어’처럼 ‘언어’라는 개념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개념의 정확성 문제이다. 만약 ‘수어’를 ‘수화를 사용하는 언어’라고 이해한다면 ‘수화’는 다만 수화언어를 실행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화가 가지는 언어적 특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화를 단지 손동작이나 손짓 정도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위험성이 크다.¹⁹⁾ 게다가 수어는 상호보완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수어’는 ‘구화’, ‘지화’ 등 다른 용어와 대립적으로 사용되기가 쉽지 않다.²⁰⁾ ‘구화’나 ‘지화’ 등 수화와 자주 함께 사용되는 용어들이 모두 ‘~화’라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어’만 ‘~어’의 구조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떨어뜨린다.

(다)의 사회적 용인성 기준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가리는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사회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용어이든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이든 어느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근거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만약 해당 용어가 잘못된 개념/대상을 나타내거나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위험이 없다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더 익숙하게 사용될수록, 더 널리 사용될수록 더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논의했던 ‘수화’와 ‘수어’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수화’는 상대적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그만큼 농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어’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 영역이 주로 학술적인 분야로 제한적이며 또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익숙도 역시 ‘수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농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사회적으로 익숙한 ‘수화’가 더 적절한 용어가 된다.

19) ‘수어’는 수화가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인데 오히려 수화의 언어적 특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20) 게다가 ‘사회적 용인성 기준’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수어’보다는 ‘수화’가 더 적합한 용어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참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을 개별 용어에 적용하고 그 적절한 사용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청각장애인과 농인 및 한국수화와 한국수어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및 제시방향

손원재

명성교회 농아부 담임목사

1. 들어가는 말

김철관 교수님의 「한국수화 및 한국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농아인과 농인, 난청인과 청각장애인, 수화와 수어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제 의견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농(아)인 관련 용어의 사용 실태

먼저 한국농아인협회가 이 토론회를 위해 조사한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농(아)인 관련 용어	농인, 농아인, 농아자, 청각장애인, 구화인, 난청인
수화 관련 용어	수화, 수어 한국수화, 자연수화, 농식수화, 관용수화, 한국어대응수화, 문장식 수화, 청인식 수화, 손짓 한국어

2-1 농인과 농아인, 농아자

농인, 농아인, 농아자는 모두가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농인의 개념은 분명치 않다. 농인인가 농아인인가 농아자인가 하는 개념이해가 부족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농인들이 대부분 「deaf」라고 하는 것보다 「Deaf」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마찬가지로 농아자, 청각장애인보다 「농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지배적이다.

2-2 각국에 따른 농인 관련 용어 실태 분석

농인 관련 용어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농아	농아, 농인,	농자(農者)	농아, 난청
	청각장애자		청각장해자	
		난청	난청	

위와 같이 농아, 농자, 농인은 모두 비슷한 개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농아사회에 있어서 농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강조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단, 난청인은 농아인이기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난청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보면 난청인은 농아부류에 내포되고 있다. 그래서 제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청각장애인이란 병리적인 관점에서 농아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농인은 청각장애인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농인사회에서는 사회적 의미의 농인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3. 수화 관련 용어

3-1 수화나 수어나

수화관련용어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손말	수어(手語)	수화(手話)	수화

위와 같이 각국에 따라 수화관련용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수화와 수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수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전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해 온 용어이다.

일부에서는「수화」대신「수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라고 하면, 농아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어가 낫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어에서 ‘어(語)’라는 한문을 보면 말(言)과 나(吾)로 결합되어 있다.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언어인 한국수화를 창조한 농아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세워주는데 수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수화’대신 ‘수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수화는 역시 하나의 언어체계이기 때문에 ‘수화’보다는 ‘수어’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화’는 해당분야 전문가

와 학자, 그리고 수화사용자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모두가 두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해 온 일반대중에게 익숙한 용어이다.

4. 마무리

농인관련용어와 수화관련용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한국사회와 농인사회가 가장 잘 사용하는 빈도수가 아주 높은 것으로는 농인을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수화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농인을 이르는 용어에서는 사용시기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반면, 수화는 일관성 있게 유지해 지고 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용어 사용 환경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한국수화는 지금까지 혼용적으로 사용해 왔던 부분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며 수화기본법은 전체를 통칭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수화도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자는 측면에서 수화언어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번 공청회를 통해서 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용어를 재정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화언어기본법으로든지 수화기본법으로든지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재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국수화 및 한국수화 원어민 관련 용어에 대한 검토’ 토론문

강미영·김아영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사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이 글에서는 ‘수화’와 ‘수어’, ‘농인’, ‘농아인’,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수화 관련 법률에서 이들 용어를 사용할 때의 장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수화/수어²¹⁾

‘수화’와 ‘수어’ 용어와 관련하여 우선 한자 ‘화(話)’와 ‘어(語)’가 국어에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한자는 모두 국어에서 홀로 쓰이지는 못하나,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빈번하게 쓰이는 편이다. ‘화(話)’는 ‘일화(逸話), 설화(說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뜻으로 쓰인다. 반면, ‘어(語)’는 ‘한국어(韓國語), 고립어(孤立語)’에서처럼 한 언어 체계를 전체를 가리키거나, ‘사어(死語), 비어(卑語), 은어(隱語)’처럼 단어 또는 구에 국한된 특정 어휘의 집합만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이들은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예: 한국어-한국말, 표준어-표준말 등).

‘수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는 우리말에서 language를 ‘언어’로 번역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話)’보다는 ‘어(語)’가 일반적으로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쓰임일 뿐, ‘화(話)’나 ‘어(語)’ 자체에 어떤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어에서는 ‘관화(官話)²²⁾, 백화(白話)²³⁾,

21) ‘수화’와 ‘수어’ 용어에 관한 내용은 1998년 11월 한국농아인협회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참고 하였는데, 답변 내용은 『국어연구원에 물어 보았어요』(국립국어연구원, 1999: 245-249쪽)에 수록되어 있다.

보통화(普通話)²⁴⁾ 등과 같이 ‘화(話)’가 언어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하면서 sign language는 ‘수어(手語)’로 번역·사용된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어에서는 sign language를 ‘수화(手話)’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이는 language를 꼭 ‘어(語)’로 번역해야 한다거나, 꼭 ‘화(話)’로 번역해야 한다거나 하는 필연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수화’와 ‘수어’ 둘 중 어느 용어도 번역어로서 논리적 문제점을 갖지는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수화’와 ‘수어’가 모두 표제어로 올라 있다. 그렇다면 ‘수화’와 ‘수어’ 중 어느 용어를 법률에서 택해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때 언어의 사회성, 곧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이 크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한 용어가 이미 정착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 용어를 갑자기 바꾸어 쓰도록 하는 것은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수(洗手)하다’라는 말이 ‘손을 씻다’라는 뜻이라고 하여 얼굴을 씻을 때는 ‘세면(洗面)하다’라고만 쓰게 한다면 언중에게 과중한 짐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화’와 ‘수어’ 용어 선택을 위해서는 ‘수화’와 ‘수어’가 사용되는 실태를 폭넓게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수어’를 용어로 사용하는 논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여도 ‘수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 농학교 교과 과정과 각종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수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화’를 대표 표제어로 제시한다는 점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수화’가 공식 용어로 채택될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수화가 음성 언어와는 다른 별개의 언어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수화(手話)’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화01(手話)

「명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이 구화(口話)를 대신하여 몸짓이나

22) 중국 청나라 때에, 중국 관청에서 쓰던 표준말(표준국어대사전).

23) 현재 중국에서 쓰는 구어체 언어(표준국어대사전).

24) 북경어음을 표준음으로 삼고 북방화를 기초방언으로 하고, 모범적인 현대백화문 저작을 어법 규범으로 하는 현대 한(漢)민족의 공통어(두산백과).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 손가락이나 팔로 그리는 모양, 그 위치나 이동, 표정이나 입술의 움직임 등을 종합하여 행하여진다. ≡손짓말「1」·수어01(手語).

이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화를 구화(口話)²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리한다는 점이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곧 농아인의 의사소통수단의 하위 개념으로서 수화와 구화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수화는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주로 음성 언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수화가 이처럼 음성 언어와 대비되는 시각 언어를 이르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점이 사전의 뜻풀이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인/농아인/청각장애인

법률이나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현재 법률에서는 ‘농아자(「형법」, 「형사소송법」)’, ‘농아인(「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²⁶⁾’, ‘청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연구 제목에 ‘청각장애인(2009)’, ‘농인(2012)’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립국어원·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2009)의 “이런 말에 그런 뜻이?—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에서는 「형법」의 ‘농아자’라는 표현 대신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권유한다. ‘농아자’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아자’라는 표현 자체가 ‘병어리, 귀머거리, 언청이’ 등의 표현처럼 차별을 내포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농인, 농아인, 농아자’ 등도 중립적 표현이며, 특히 단체 이름에 ‘농아인’이 사용되는 등 이들 용어가 농인/농아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5) 언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특수한 교육을 받아 상대가 말하는 입술 모양 따위로 그 뜻을 알아듣고, 자기도 그렇게 소리 내어 말함(표준국어대사전).

26) 이들 법률에서 ‘농아인’이라는 용어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농아인올림픽’을 언급하며 ‘농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법률에 사용될 용어를 선택할 때에는 다른 법률 및 다른 용어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등급판정기준 등의 법률」에서는 모두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의 용어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단순히 병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용어라고만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처럼 여러 법률 안에서, 다른 용어와의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표준국어대사전의 ‘수화’의 뜻풀이에서는 수화의 주 사용자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 310,307명(추정 수) 중 4.6%인 14,200여 명²⁷⁾과 언어장애인 103,880명(추정 수) 중 10.4%인 10,800여 명이 수화를 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곧 수화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수화 관련 법률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모두 다루는 점은 언어장애인의 언어 선택권 곧 언어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수화를 음성 언어인 국어와 동등한 위치에 둘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수화 관련 법률에서 ‘농인/농아인’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한다고 하여도 ‘청각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인 ‘농인’보다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농아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²⁸⁾

27) 청각장애인 중 수화 사용 비율이 낮은 이유는 청각장애인 중에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이 많기 때문이다.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보건복지부: 139-140쪽)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농인(deaf person)과 난청인으로 분류되는데, (가) 농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고 귀만으로는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나) 난청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아도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 35~ 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8) 표준국어대사전에 ‘농인’은 ‘청각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올라 있는 반면, ‘농아인’은 올라 있지 않고 ‘농아’만 ‘①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귀가 안 들려 언어장애인이 된 것’이라는 뜻으로 올라 있다. 그런데 ‘-인(人)’은 ‘원시인, 한국인, 종교인’ 등과 같이 일부 명사(名辭)의 뒤에 붙어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농아’라는 명사에 접미사 ‘-인’을 붙여 ‘농아인’이라고 쓰는 것에 큰 문제는 없으며, 사전에 ‘농아’의 뜻①에 대한 동의어로 ‘농아인’을 새로 올리는 것도 고려해볼 직하다.

[부록]

농사회 용어정리 사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농사회 용어정리 사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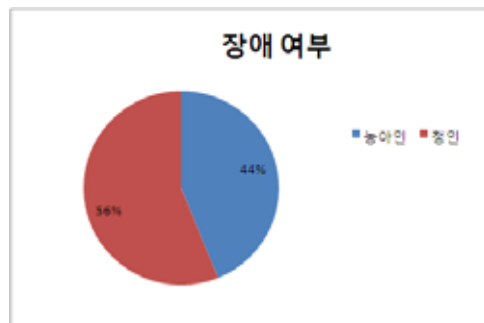
농사회 용어정리 토론회를 앞두고, 2013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터넷(<http://me2.do/xmV4scjx>)을 통하여 사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수응답문항은 10문항이다. 참여대상은 제한이 없었으며 총 299명(315개 응답 중 중복 제외)이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별도 제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문항(농/청 여부, 연령, 수화 사용여부, 능숙도)과 용어에 대한 선호도(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는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농아인에 대비되는 용어, 농아인이 사용하는 시각언어,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하는 수화)와 기타문항 (수화기본법에 한국어대응식수화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 수화기본법의 선호 명칭)으로 이루어졌다.

1. 응답결과 (통합)

가. 장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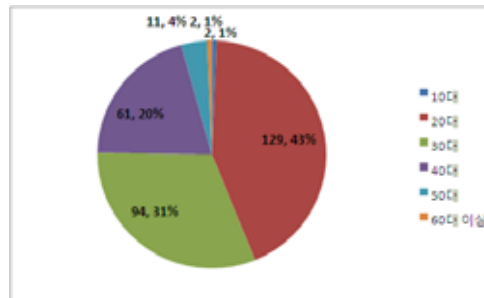
	빈도
농아인	131
청인	168
합계	299



응답대상 중 농아인은 131명, 청인은 168명으로 각각 56%, 44%를 차지하였다.

나.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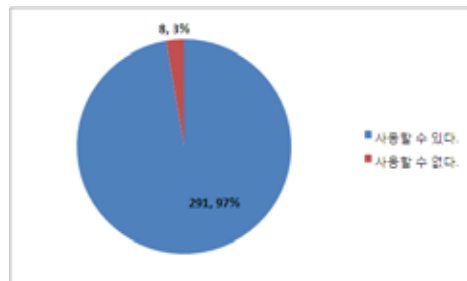
연령	빈도
10대	2
20대	129
30대	94
40대	61
50대	11
60대 이상	2
합계	169



연령대는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20대가 43%, 30대가 31%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 수화 사용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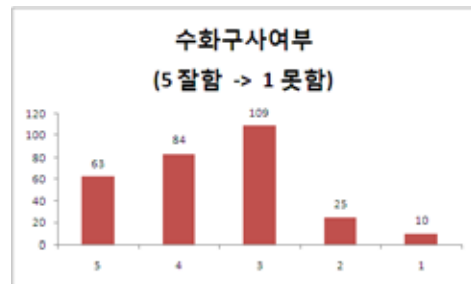
	빈도
사용 가능	291
사용 못함	8
합계	299



수화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97%의 응답자가 수화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7명은 청인이었다.

라. 수화 능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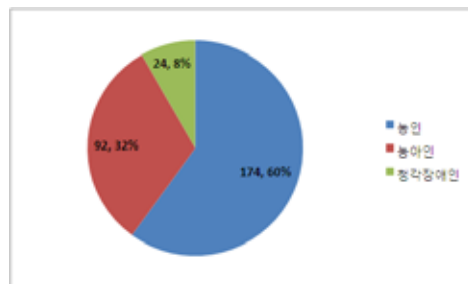
	빈도
못함	10
약간 못함	25
보통	109
약간 잘함	84
아주 잘함	63
합계	291



수화 능숙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8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수화 실력을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빈도
농인	174
농아인	92
청각장애인	24
합계	290



“농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선호도가 60%, “농아인”이 32%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어가 필요한데 청각장애인은 병리적 관점에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협회에서 통합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농아인은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인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농"은 귀가 먹다. 라는 뜻에서 기능의 면에서 청각장애와 연결이 될 수 있으나 "아"는 병어리 즉 "언어 장애"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언어 장애인"이라 볼 수 없음으로 "농인"이라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농아인"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자신을 "언어 장애인"이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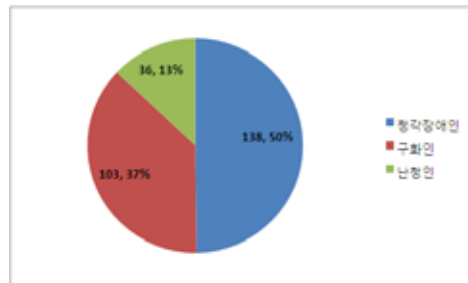
다. 수화를 제1언어. 혹은 농인의 부모에서 자라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찌 "언어 장애인"일 수 있습니까?

◎농아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병어리-말하지 못하는- 아 한자 뜻이 농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언어가 있는데 말 못한다는 개념을 이제는 버려야합니다.

◎언어장애인(청아인)도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인과 아인을 농아인으로 통일 하였으면 합니다.

바.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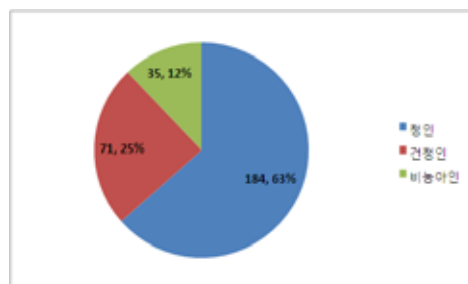
	빈도
청각장애인	138
구화인	103
난청인	36
합계	277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에 대한 선호도는 “청각장애인”이 50%를 차지하였고, “구화인”이 37%, 난청인이 13%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중도실청인”, 농인과 차별을 두지말고 그대로 농인이라 부르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사. “농아인”에 대비되는 용어의 선호도

	빈도
청인	184
건청인	71
비농아인	35
합계	290



농인에 대비되어 “비장애인”, “청인” 등으로 불려왔던 용어에 대해서는 “청인”에 대한 선호도가 63%, “건청인”이 25%, “비농아인”이 12%로 나왔다.

◎농인과 다른 음성언어와 문화를 갖추고 있어 청인이라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보통 농아인을 반대되는 말로 귀가건강한사람인 건청인을 사용하기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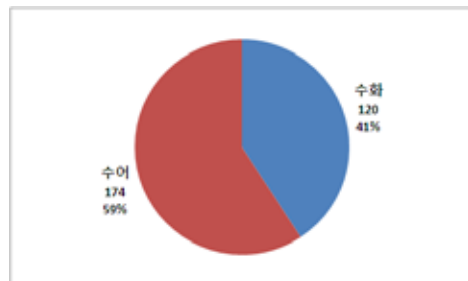
◎음성언어와 소리에 주로 의존하여 의사소통한다는 의미로 청인

◎청인이 '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농인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용어가 농인 이기때문에.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시 병리적 관점으로 농인을 볼수있으므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외국인이란 단어로 지칭하는걸 보면 농인과 비농인도 충분히 일리가 된다"

아. “농아인이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빈도
수화	120
수어	174
합계	294



“수화”와 “수어”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41%, 59%로 “수어”가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수화는 말이란 느낌뿐 언어란 느낌은 없다. 수어는 하나의 언어로써 말이란 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하는 단어로 받아들여진다.

◎수화 언어라고 표기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수화를 병기하는게 좋음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용어를 순식간에 바꾸는데 지나친 에너지와 예산이 필요

◎손으로 말하다는 의미이지만 대화는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에서 수화라는 것이 더 소통을 뜻하는 의미로 느껴진다.

◎수화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용어이며 이것으로도 충분히 언어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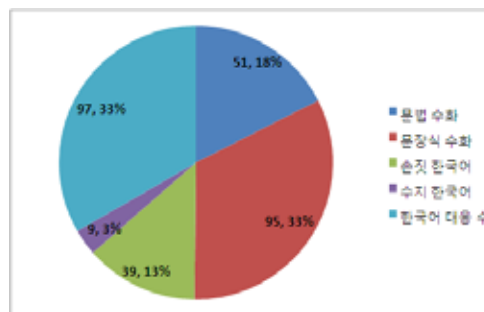
◎언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수어라는 용어 또한 맞는 용어이긴 하나 언어의속성안에 있는 사회성관점에서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수어보다는 수화란 용어를 더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국어라고 하니까 수화보다는 수어라고 표현. 그리고 수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언어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음.

◎이제는 언어라는 개념을 써야합니다. 수화는 언어다 라는 캠페인도 계속하고 있고, 영어 ASL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언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아직 인정이 없지만, 캠페인 운동을 계속 한다면 언어로 인정하는 날이 올 것 입니다.

자.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하는 수화”를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빈도
문법 수화	51
문장식 수화	95
손짓 한국어	39
수지 한국어	9
한국어 대응 수화	97
합계	291



수화 고유의 문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문법대로 표현하는 수화를 뜻하는 용어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어 대응 수화”가 33%, “문장식 수화”가 33%, “문법 수화”가 18%, “손짓 한국어”, “수지 한국어”가 각각 13%, 3%로 나타났다.

◎문장식 수화라는 용어를 '문장 그대로'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청인에게 수화는 언어다 라는 홍보를 위해서 더 정확한 용어가 필요합니다. 한국어 대응 수화라는 용어를 쓴다면 수화가 한국어가 아니라는 인식도 생길 것 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문장을 수어(수화)로 표현할 때 100% 문법 그대로 표현하지 않으며 간간히 여러가지 비수지 기호및 비문법적요소가 첨가되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의 '문법'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허용적인 '문장식'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어순에 일대일 대응하여 수화하는 관점에서 볼때 한국어 대응 수화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수지한국어는 지문자로 볼수 있으며 손짓한국어는 음성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손짓 자체를 격하시킬 수 있습니다. 문법수화는 수화언어에 문법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법 수화 - 수화가 한국어에 종속 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한국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문법 능력이 약한 사람으로 인식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사용자를 우위에 두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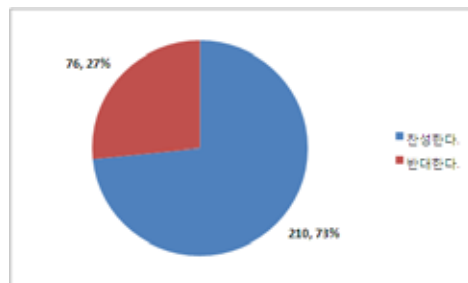
문장식 수화 - 한국 수화 문법에 맞는 문장 역시 문장입니다.

손짓 한국어 / 수지 - 수화가 손짓으로만 구성된다는 편협하고 수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용어입니다.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하는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일지라도 ""비수지""로 수화 문법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하는 수화에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수화가 아닌 '한국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용어에도 수화가 아닌 한국어가 표시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한국수화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차. 수화기본법에서 한국어 대응식 수화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

	빈도
찬성	210
반대	76
합계	286



독일과 같이, 향후 제정될 수화기본법에서 한국어 대응식 수화를 수화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한국어 대응식 수화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73%의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미 젊은 농아인들 or 학생들은 한국어 대응식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반대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고 농식수화로 청인들이 만들어놓은 이론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각한다.

◎요즘 추세가 수화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말을 가르치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또한 한국 사회에서 농인들이 많은 어려움 겪는이유가 한글 문법을 잘몰라서 필담을 하더라도 이해가 어려운 일이 많으므로 필요하다

◎학문적 내용을 전할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가능하다 보며, 이미 한국어로 구조화된 많은 학문 이론과 용어들을 수화언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완전히 이해할때 농인 지식의 세계가 넓어질거라생각합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ASL과 SE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대응수화가 나쁜것이 아니라 어느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모른채 혼용해서 한국수화라고 불려왔던 기존 연구자들의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수어와 한국어대응수화는 명확히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한국어대응수화는 교육적 사용에 있어 그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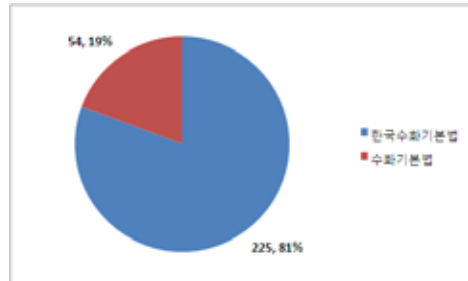
◎한국어 대응수화는 올바른 수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다보면 자연수화가 점점 사라질 것 같다

◎이제까지 농교육 100년 동안 해온 것이 한국어 대응 수화 입니다. 그 결과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한국어 대응 수화를 교육 현장(정식으로 교과서등을 통한 교육)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화를 한국어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나올 뿐입니다. 또한 교육적인 면에서 한국어 대응 수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누구(청인? 농인? / 교사? 부모? 학생?) 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사 등을 모두 표현한 한국어 대응식수화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느정도 과목의 특성에 맞춰 농식과 병행하여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권과 보편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법률의 명칭의 선호도

	빈도
수화기본법	54
한국수화기본법	225
합계	279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수화 관련 법안의 이름으로는 81%의 응답자가 “한국수화기본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수화가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수화가 다른 상황에서 조금은 명확하게 명칭을 지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됨.

◎한국수화는 지금까지 혼용적으로 사용해 왔던 부분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며 수화기본법은 전체를 통칭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수화도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자는 측면에서 수화언어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 법안 내용에 수화언어도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한국수어, 미국수어, 일본수어 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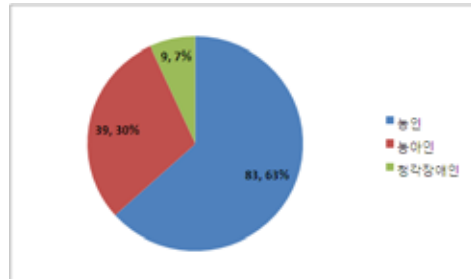
◎한국이란 단어를 넣지않아도 당연 한국수화일 것이고, 함축된 명칭이 사용하고 익히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수화가 전 세계 공통이 아니라 나라마다 고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국수화기본법이라고 용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응답결과 (농인)

가.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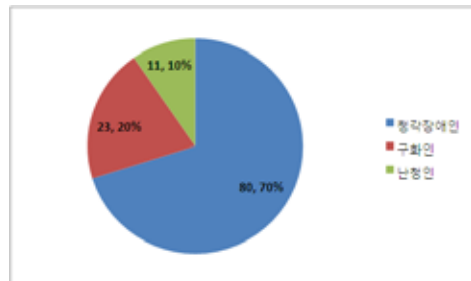
	빈도
농인	83
농아인	39
청각장애인	9
합계	131



“농인”에 대한 선호도는 63%, “농아인”에 대한 선호도는 30%로 나타났다.

나.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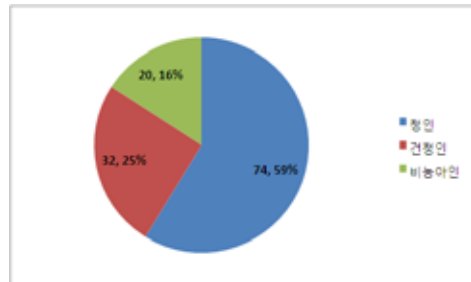
	빈도
청각장애인	80
구화인	23
난청인	11
합계	114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호도가 통합 응답결과보다 월등히 높은 70%에 달했다. 뒤이어 “구화인” 20%, “난청인”이 10%의 선호도를 보였다.

다. “농아인”에 대비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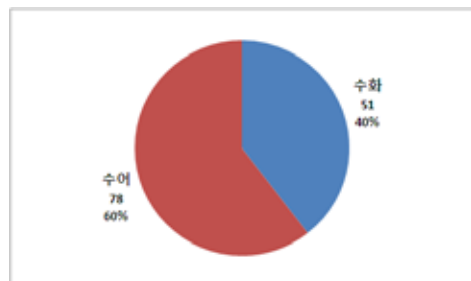
	빈도
청인	74
건청인	32
비농아인	20
합계	126



“청인”이 59%, “건청인”이 25%, “비농아인”이 16%의 선호도를 보였다.

라. “농아인이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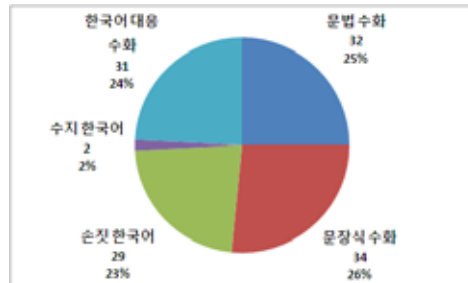
	빈도
수화	51
수어	78
합계	129



“수화”가 40%, “수어”가 60%의 응답을 보여 통합 응답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마.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하는 수화”를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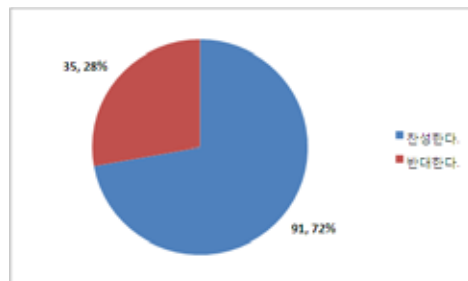
	빈도
문법 수화	32
문장식 수화	34
손짓 한국어	29
수지 한국어	2
한국어 대응 수화	31
합계	128



“수지한국어”를 제외한 “문법 수화”, “문장식 수화”, “손짓 한국어”, “한국어 대응식 수화”에 대한 선호가 23~26% 내외로 고르게 나타났다.

바. 수화기본법에서 한국어 대응식 수화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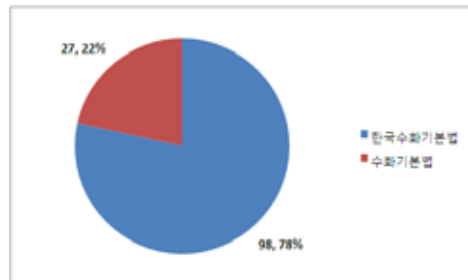
	빈도
찬성	91
반대	35
합계	126



통합 응답결과와 유사하게 찬성이 72%, 반대가 28% 가량이다.

사.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권과 보편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법률의 명칭의 선호도

	빈도
수화기본법	27
한국수화기본법	98
합계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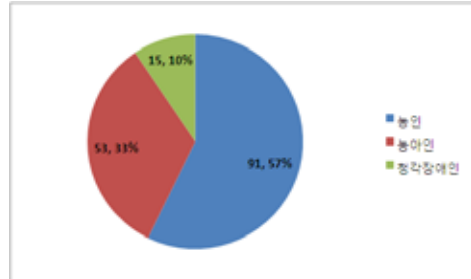


법안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수화기본법”이 78%, “수화기본법”이 27%이다.

3. 응답결과 (청인)

가.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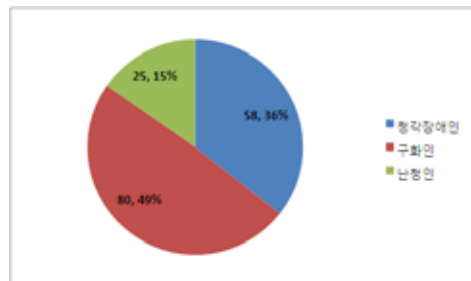
	빈도
농인	91
농아인	53
청각장애인	15
합계	290



선호도는 각각 “농인”이 57%, “농아인”이 33%, “청각장애인”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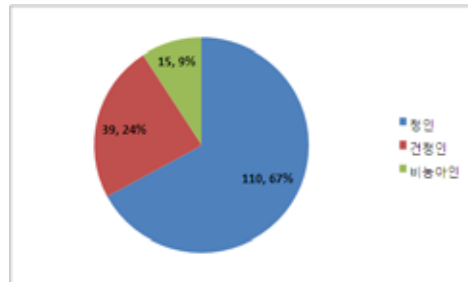
	빈도
청각장애인	58
구화인	80
난청인	25
합계	163



선호도는 “구화인”이 49%, “청각장애인”이 36%, “난청인”이 15%인 것으로 나타나 농인의 응답 결과 추계와는 차이를 보였다.

다. “농아인”에 대비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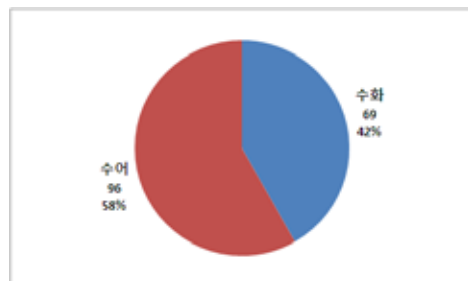
	빈도
청인	110
건청인	39
비농아인	15
합계	164



“농아인”의 대비어에 대한 선호도는 “청인”이 67%, “건청인”이 24%, “비농아인”이 9%로 나타났다.

라. “농아인이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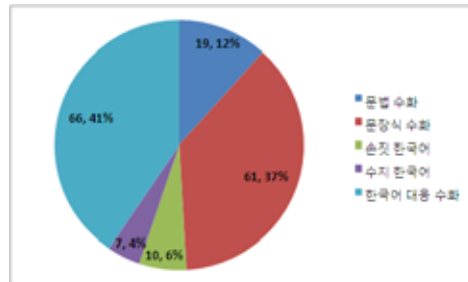
	빈도
수화	69
수어	96
합계	165



“수화”에 대한 선호도는 42%, “수어”에 대한 선호도는 58%로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하는 수화”를 뜻하는 용어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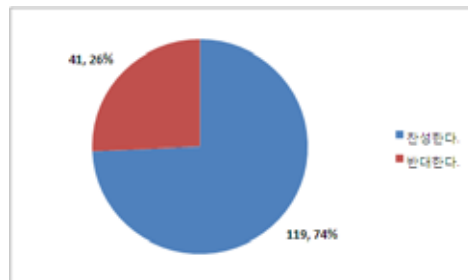
	빈도
문법 수화	19
문장식 수화	61
손짓 한국어	10
수지 한국어	7
한국어 대응 수화	66
합계	128



한국어 어순대로 표현하는 수화를 뜻하는 용어는 농아인의 응답과 다르게 “문장식 수화”와 “한국어 대응 수화”에 각 37%, 41%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차. 수화기본법에서 한국어 대응식 수화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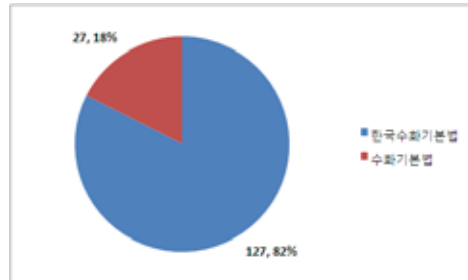
	빈도
찬성	119
반대	41
합계	160



한국어 대응식 수화의 교육현장 사용 및 법제화에 관해서는 찬성이 74%, 반대가 2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카.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권과 보편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법률의 명칭의 선호도

	빈도
수화기본법	127
한국수화기본법	27
합계	154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는 “한국수화기본법”이 82%, “수화기본법”이 18%의 선호도를 보였다.

4. 기타의견

◎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용어를 재정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몇년 동안의 법 제정화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지 어떤 농인도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사회 내부에서 부터 충분한 토의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는 힘을 한 곳에 결집하기 어렵습니다.

◎기본법 제정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한국수화의 문법과 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수화는 언어다!'라는 선언만 했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언어로서의 근거를 밝혀내는 작업에 있어서 미흡함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인들의 교육권, 정보권, 문화향유권 등등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의 한 축에는 수화가 기본이 되어야합니다. 그 기본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농인은 사회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능력과 화합, 소통을 이루어낼것이고 그리된다면 국가발전에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말" "언어" 를 제대로 존중하고 지켜주십시오.

◎특수교사 입니다.

일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수화를 배우게 하지도 않고, 특수교육에서도 완전 통합학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 적이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 수업 시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화든 속기든 아이들 학습권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완전통합 학생이 있는데.. 특수교사로써 신경 써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수화기본법을 통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업권도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게 되는 농인들. 그리고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수화 단어 하나만 알아도 그들을 보는 시
선이 달라지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불쌍하다는 동정 따윈 하지 못 할거라
던 어느 통역사분의 말이 떠오릅니다.